

지구촌 시대의 예절교육의 필요성

이 정 우 (숙명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목차

1. 지구촌 시대의 도래와 예절의 현주소
2. 예절의 본질
3. 지구촌 시대 예절교육의 중요성 및 방향

I. 지구촌 시대의 예절교육의 필요성

1. 지구촌 시대의 도래와 예절의 현주소

우리는 세계가 한 지붕인 이른바 지구촌 시대에 살고 있다. 교통수단과 정보통신 기술의 획기적인 발달로 세계가 상대적으로 좁아지면서, 지금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국경의 담을 넘어 '지구촌'의 이름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해 가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기존의 공간과 거리의 개념을 초월하여 이 지구상 어디에 살고 있는 누

구와도 사고와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외국여행도 일상화되어가고 있다. 한씨의 경우를 예를 든다면

경기도 성남시 한씨의 아파트에 싱가폴로 쇼핑하러 오라는 안내 유인물이 날라 들어온다. 집안에서 인터넷의 가상 캠퍼스를 통해 대학 교과목을 학습하고 필요시만 집합교육(Schooling)에 참가하며, 미국 워튼스쿨 도서관에서 관련 논문을 검색한다. 전공이나 관심분야별 토론그룹이나 뉴스그룹에 참가해 세계의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며, 연례행사로 중국 북경대나 일본의 동경대학생들과 사이버 포럼을 공동 개최한다. 인터넷으로 미국의 코넬 대학에 연결하여 방학특강을 신청하고, 노르웨이의 선타회사에 연결, 어린아이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을 신청한다. 옆집 아저씨가 카작스탄으로 별경받아 나가고 외국인 근로자가 금강산 봉래호에 선원으로 탑승한다. 그는 대학을 졸업한 후 미국의 IBM에 취직이 되어 나가게 되었고, 휴가로 영국 런던시내를 걷고 있던 중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을 만난다.

굳이 해외 경험이 없는 일반인에게도 이러한 얘기들이 이제는 낯설지 않다. 외국의 구분과 경계가 없어진 하나의 세계, 즉 지구촌(Globality)이 되었기 때문이다.

한 사회가 유지·존속되기 위해서는 그 사회 내에서 상호간에 편리하고 합리적인 독특한 생활 방식과 구조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를 “문화”라 하는데, ‘예절과 법도’는 하나의 문화로서 인간관계의 바탕이며, 사람들의 생활양식의 구조임으로, 예절은 타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교량적 역할을 한다. 즉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는 사회생활의 기본으로써, 문화와 생활환경이 다른 지구촌 사람들 간에 발생하는 문화적 갈등을 극복하는 수단으로서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인간으로서의 자기 품위관리와 사회인으로서의 대인관계, 그리고 국가간의 원활한 관계증진을 위해서 ‘예’는 지구촌 시대에 어디에서나 필요한 생활의 기본적 요소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예절은 개인에 대해서는 그의 인격과 교양을 가름하는 척도로, 사회와 국가에는 선진화의 잣대로써 중요한데,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예절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예’가 생활문화의 표현 양식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한국사회의 급속한 변화는 우리의 예절문화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우리민족은 전통적으로 예절을

중시해온 문화민족으로서 타민족으로부터 동방예의지국으로 존경받아왔다. 이에 반해 오늘날의 우리국민은 가정·학교·사회 전반에서 예절의 실종과 함께 지구촌 시대에 필요한 국제매너의 부재로 인하여 국내외에서 지탄과 반성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관련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 1 : 지하철에서 - 철없는 젊은 엄마

몇 달전 지하철을 탔다. 힘들게 손잡이를 잡고 서있자니까 바로 앞좌석에 앉아있던 젊은이가 벌떡 일어나고맙게도 자리를 양보하였다. 앉으려는 순간, 몇 사람 건너 옆에 서있던 초등학교 2~3학년생쯤 되어 보일까하는 꼬마 사내아이가 누군가에 떼밀리기라도 한듯 썩살같이 내쪽으로 뛰어와 자리에 앉아버리는게 아닌가

「하기야 너와 나나 노약자, 같은 처지이니까」 하는 생각을 하며 마음속으로 쓴 웃음을 지었다. 그런데 잠시 후 앉았던 그 꼬마가 나를 쳐다보고 「아,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하고 일어서려는게 아닌가.

그러자 아까 꼬마가 뛰어오던 쪽에서 「그냥 앉아있어!」 하는 날카로운 여자목소리가 날아왔다. 꼬마의 엄마인 듯 보였다. 자기 자식 귀여운 줄만 알았지, 남을 배려하고 생각할 줄 아는 예절교육은 시키지 못하고 있는 요즘 젊은 엄마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안타까웠다. (조선일보, 1999년 7월 19일자)

사례 2 : 「어글리」 태국 관광

태국의 어느 호텔에서 있었던 일이다. 바깥이 소란스러워 방문을 열어 보았더니 진한 라면냄새와 함께 악자지절한 우리말 소리와 웃음소리가 복도에 퍼지고 있었다. 단체여행을 온 듯한 중년부부 몇쌍이 한 방에 모여 컵라면을 먹으며 떠들고 있었다. 그것도 방문을 열어놓은 채. 다음날 아침 식당으로 내려가는 도중이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복도가 떠나갈 듯 시끄럽게 떠들며 엘리베이터를 타러 오는 아주머니들과 마주쳤다. 아주머니들은 대형 승강기가 6대나 있는데도 타고있는 승강기 단추를 누른 채 동료들에게 빨리 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 아주머니들이 단추를 누르고 있는 몇 십 초동안이 나에게 몇 십 분처럼 느껴졌다.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출구에서 몇 사람이 우왕좌왕하고 있었는데 아까 그 아주머니들이었다. 뷔페테이블에서 과일과 빵, 삶은 계란 등을 손수건과 종이 냅킨

에 써가지고 나오다가 호텔직원의 제지를 받은모양이었다. 호텔직원의 지시로 음식을 제자리에 도로 갖다놓고 나오는 그 아주머니들의 얼굴엔 창피하거나 부끄러운 기색이 전혀 없었다. (조선일보, 1999년 6월 28일자)

우리 사회의 예절 부재로 인한 예들은 이와 같이 다양하다. 다른 문화에 대한 무지와 국제매너를 모르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 때문에 400만이나 되는 한국인들이 세계 각국에 가족이나 친지 단위의 단체여행, 신혼여행, 배낭여행, 직장인들의 해외 시찰, 연수, 국제회의 등을 통해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에서 별로 환영을 못 받고 있다. 아니 환영은 커녕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한국 단체 여행객을 앞으로는 받지 않겠다고 정중히 사절하는 호텔과 식당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절 없는 한국인'의 불명예를 벗고 지구촌의 주역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예절을 갖춰 교양 있는 세계인이 되어야 한다.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이전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 맞추어 예절도 새로운 형태로 변모해야 한다. 우리고유의 '예'를 계승하고 지키는 가운데 다른 문화권의 '예'도 존중하고 익혀서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예문화와 다른 나라의 예문화를 적절히 조화시켜 국제인으로서 세련된 '예' 문화를 갖추어야 한다(이정우 외, 1996).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할 사회는 대립과 갈등, 소외와 분열의 논리가 아닌 화합과 통합 그리고 양보, 사랑을 근간으로 하는 친환경적이고 평화지향적인 가치를 지향하고 있음으로, 지구촌 시대의 개인들이 추구해야할 가치와 이상은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에 걸맞는 '예'를 실천하는 것이라 하겠다.

전통사회에서의 예절교육은 말을 배우는 유아기부터 일상생활속에서 가족내의 권위를 지닌 웃어른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나, 현대에는 핵가족화로 인해 예절을 가르칠 권위를 지닌 웃어른이 없다. 게다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하여 가족간에 함께 공유할 생활문화도 부족할 뿐 아니라 자녀의 사회화를 책임져야할 여성들의 사회진출은 예절교육의 부재를 부채질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가정에서 해야할 예절교육은 학교의 책임으로 어느새 전가되고 말았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가정과 함께 놀이방·유치원·초등학교시기부터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지속적인 예절교육이 단계적으로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래전부터 입시위주의 지식편향적이고 결과중심적인 대학 진학을 위한 교육에만 치중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도리인 예절교육을 소홀히 하거나 방치해오고 있다. 그 결과 예절 부재적이고 몰염치한 어글리 코리아인의 행동이 국내는 물론 세계도처에서 지탄을 받게 되었다. 특히 대학시기는 인생주기에서 생활교육이 어느 정도 몸에 익숙해진 청년 후기로, 대학생이 지구촌 시대의 주역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능력 배양도 중요하지만, 예절교육을 통해 올바른 자아개념의 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황경식, 1995). 이들은 우리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주도세대로서 국가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세계 속의 한국을 대표하고 위상을 높일 책무를 지고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예절교육은 시급하고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21세기 새로운 천년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지구촌 시대의 예절교육의 필요성 등을 살펴보고 단계별로 예절지도를 책임질 예절지도사를 길러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매우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과업이라고 생각한다.

2. 예절의 본질

1) ‘예(禮)’의 의미

어느 시대, 어떠한 형식의 ‘예(禮)’라 해도 그것은 근본적으로 인간관계를 지배하는 행위 규칙이며 사회규범이다. ‘예(禮)’는 사회를 밝고 건강하게 유지해 주는 기본이며 인간다운 인간의 품격 및 타인에 대한 배려를 의미한다. 이점에서 우리는 공자의 사상을 상기할 수 있다. 공자는 “나라가 망하는 것은 군대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가 없을 때”라고 하였으며, 사회규범으로서 ‘예(禮)’와 ‘인(仁)’을 같은 뜻으로 생

각하여 ‘인(仁)’을 사람의 근본으로 보았다. ‘인’이란 ‘사랑의 실천’이라고 생각하고 인간에게 ‘예’가 없음은 ‘인’이 없음과 같다고 하였다. ‘인’이란 곧 자제심, 즉 자기를 다스리는 것이며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고 이길 수 있을 때 비로소 ‘인’을 행할 수 있고, ‘인’이 이루어질 때 ‘예’는 저절로 드러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인’이나 ‘예’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고 스스로 실천하되 항상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임을 근본으로 한다.

‘예’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의 사회생활의 근본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같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자기 관리와 사회인으로서의 대인관계를 원만히 하기 위해 ‘예’는 사회생활의 기본이 된다. 이는, ‘예’가 인간의 인격형성 요건인 동시에 사회 생활의 기본 요건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인간의 공동체생활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라 하겠다.

‘예’란 인간이 지닌 순수하고 선한 마음이 행동을 통하여 표출된 것을 말한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함부로 남의 것을 뺏어먹을 수 없다는 의식, 이웃이 곤경에 처했을 때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려는 따뜻한 마음씨, 복잡한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마음이 가벼운 섬김의 자세, 아랫사람의 잘못을 사랑으로 지도하고 바른길로 인도하는 행위, 이러한 모든 마음의 표현은 예라 할 수 있다(이정우 외, 1996).

환언하면 ‘예’란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자기비하가 아니라 개인의 사사로운 욕구를 억제한다는 것이다. 또한 ‘예’는 남을 위해 일방적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공존하기 위한 약속이며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하는 기준이자 척도이다(이정우 외, 1996). 이러한 ‘예’는 구체적으로 예의범절(禮儀凡節), 즉 예절의 형태로 논의될 수 있다.

‘예절’의 기능에는 수기(修己)와 치인(治人)의 기능이 있다.

수기(修己)란 스스로 사람다워지기 위해 자기를 관리함을 의미하며, 그 본질은 정성스런 마음(誠)이다. ‘예’는 자기수련 과정을 통하여 자아정체감을 증대하며, 나아가 사회에 무리 없이 적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현대사회의 병리적 양상인

무기력·무의미·무규범을 극복하는데 기여하는 기능을 한다.

치인(治人)은 남과 함께 지내는 대인관계를 의미하며, 자기 내면을 다스리던 정성스런 마음을 타인을 대할 때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對外對他的活用).

즉 예절의 기능은 개인적으로는 내적인 사람다워짐과 자아정체감을 증대시키고, 사회적으로는 대인관계를 원만히 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이정우·김연화, 1998).

이상에서 살펴본 예절의 진정한 가치는 인간의(개인의) 정신에 있다 하더라도 예절은 형식으로 드러나게 되므로 시대적 상황과 각자가 처한 입장에 따라 그 적용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사회의 변화에 따라 예절의 표현 방식은 점차 변화할 수밖에 없다.

2) 예절의 본질

동양 예절은 실천 도덕인 유교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한국의 전통예절 또한 유교의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에 기본을 두고 있다. 따라서 동양 예절의 인(仁)·경(敬)·효(孝)·자(慈)·신(信) 사상이 지구촌 시대에 도덕적 질서를 세우는데 기본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서양에는 예절을 뜻하는 낱말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를테면 *etiquette*, *manners*, *decorum*, *propriety*, *politeness*, *courtesy*, *mores*, *civilities*, *ceremonial*, *rite*, *ritual*, *custom* 등을 들 수 있겠지만, 이들은 ‘예’가 가지고 있는 모든 뜻이나 정신을 나타낼 수는 없다. Free는 서구 사람들의 예절이란 ‘*etiquette*, *courtesy*, *good taste with others*’의 세 가지를 실천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Post는 ‘배려와 친절에 바탕을 둔 행동의 규범’이라 하였다. 즉 예절은 친절, 공손, 공명정대한 정신, 타인의 의견에 관대함, 자제심, 성실한 마음과 적당한 유머, 자존심, 상식에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서양적 ‘예’의 기원은 중세 기사도에 있었다. 기사도는 근본적으로 약한 자를 보호하라는 그리스도교 정신에 기반을 두었으므로 모든 서양적

‘예’의 정신적 기원은 성경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루가 14:11), 또는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등의 성서의 구절(루가 6: 31)들은 사랑과 겸손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행동으로 표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이것은 나와 남, 남들과의 관계를 자유로운 가운데서도 평등하게 유지하려는 형평의 정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형평의 정신은 각자의 권리와 권한을 손상시키지 않는 가운데 각자의 자유와 평등을 지키면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실천 원리이기도 하다.

이와같이 서양예절은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과 공동체 생활의식에서 비롯된 건전한 시민정신으로 부터 출발한다. 서양예절의 근본정신은

1)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하라!’

즉,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말라’ 등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다.

2) 상대방을 난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며 상대방을 마음 속으로부터 존경한다. 예컨대 사교석상에서는 상대방의 기분이 상할 화제와 남의 사생활에 관한 이야기는 되도록 삼가면서 즐거운 대화를 나눈다.

3) ‘인간은 누구나 出身, 人種, 性別, 나이에 불문하고 동등한 權利를 가진다’ 는 형평의 정신에 기초한다.

4)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公共場所 중심의 廣義의 예절을 중시한다. 이러한 정신은 사교모임에서의 예의, 만찬회나 리셉션시의 매너 등 실내의 에티켓에서도 중요하지만, 공공 장소에서의 에티켓에서 매우 중요하다.

5) 여성을 존중한다. ‘Lady First’란 서양 예절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기독교와 중세의 기사도 정신에서 유래했으며 약한 여성을 돌보는 것이 신사다운 남성으로서 행해야 할 기본 덕목으로 여겼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동서양 예절은 남을 배려하고 질서를 중시한다는 면에서 그 본질은 같으나, 실천차원에서는 동양예절은 수기(修己) 즉 자기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비하여 서양예절은 공공생활 중심의 예절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지구촌 시대 예절교육의 중요성 및 방향

‘예절’은 인류적인 보편성을 지니고 있으나 그 보편성의 표현방식인 격식은 시대의 변화나 문화적 차이를 뛰어넘어 고집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예절이 시대 변천에 따라 변해야 된다고 해서 오늘의 ‘예’가 어제의 ‘예’와 완전히 단절되어서도 안되며, 서구의 예절을 한국에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21세기의 지구촌 시대의 예절은 동양 예절의 수신(修身)의 기능과 서양의 시민사회예절을 통합한 예절이 되어야 한다. 즉 예절의 본질은 원활한 공동생활체를 유지하기 위한 행동양식이어야 하겠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지구촌 사회에서 지향해야 할 ‘예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서양예절에서 진일보(進一步)된 행동지침을 세운다.

지구촌 사회의 예절은 동서양예절의 본질을 통합·절충하여 새로운 행동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나와 우리가 서로 공존하면서 조화를 찾을 수 있는 절제된 자기 수련을 쌓을 필요가 있다. 그러할 때 비로소 개별성이 존중되는 동시에 타인과 화합이 가능하며 도덕적으로 질서 있는 사회를 이룩할 수 있다.

둘째, 개인보다는 공동체의 삶의 질을 우선한다.

과거 우리 나라 예절은 주로 가족중심의 가례(家禮)로 국한되어 폐쇄적인 면이 많았으나 현 사회는 개인의 비중보다는 사회적 비중이 커지고 있어 모든 개인 문제도 사회체계 내에서 인간관계의 개선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지구촌 시대의 예절은 공중도덕·공공질서를 준수함으로써 공동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하겠다. 우리는 공공질서와 공중도덕을 지키는 교육에 관하여 어려서부터 철저한 훈련을 받지 못하여 실례되는 행위를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건전하고 교양 있는 시민의식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높은 자긍심과 함께 공동체 지향적인 예절의 확립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수평적이고 평등한 예절을 지향한다.

이는 유교에 바탕을 둔 우리 문화가 윗사람 중심(君師父)의 수직적인 예절과 가정, 친인척 중심의 협의(狹義)의 예절을 중요시하는 반면에 지구촌 시대의 예절은 누구나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즉, 민족·문화·성 등에 따른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동양의 가부장제 문화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한 대접을 받았던 데서 벗어나, 서양의 기독교와 중세의 기사도 정신에서 유래한 'Lady First'를 토대로 남녀 평등한 삶을 추구한다. 이와 같은 평등한 인간관계를 지향할 때 비로소 형식적인 예절은 사라지고 마음으로부터의 존경과 사랑이 담긴 예의 참뜻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려는 의식구조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의식구조와 사고방식, 우물안 개구리 식의 오만과 허세·과시욕을 벗어 버리고 서양문화의 특성인 남을 먼저 배려하며 폐를 기치지 않으려는 태도를 철저히 생활화하고 문화적 차이 그 자체를 존중하며 타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도록 한다. 그리고 평소에 가까운 동료나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 및 외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려는 거시적인 노력 등도 필요하다(평화봉사, 난민봉사, 문화답사여행 등).

다섯째, 지구촌 표준에 맞춰 예절의 형식을 변형시킨다.

지구촌 시대에 다른 나라와의 교류에는 지구촌의 표준이 있다. 기업이나 국가에서 마련한 표준화 작업이 외형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는 있지만 실제 우리들의 태도나 수준이 이에 맞추어 변하고 있는지는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여섯째, T.P.O에 맞는 예절을 익혀야 한다.

'좋은 매너가 좋은 분별력을 만든다' 는 이야기가 있듯이 언제나 시간과 장소 그리고 상황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며 화장하고 옷을 입어야 한다.

일곱째, 예절을 실천에 옮긴다.

예절은 행위로 표시되며 행위는 지켜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에 옮길 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어려서부터 가정교육을 통해서 생활예절과 국제매너가 몸에 배도록 습관화 해야하며, 급변하는 사회·경제환경에 따라 정규교육기관과 사회교육 기관에서의 교육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하여 예절 행위가 자연스럽게 반복되는 동안에 사회전체가 '예'의 본질을 터득하고 생활화하게 될 때 우리모두 마음이 편안하고 질 높은 삶을 향유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구촌에서 한국인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행하는 예절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다면 이제 예절은 몇몇 사람이 배워야할 선택사항이 아니라 한국인 모두가 특히 젊은 세대들이 반듯이 알고 익혀야 할 필수요건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하겠다. 하루속히 우리는 우리의 경제성장과 국제적 위상에 알맞게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함께 국제예절을 몸에 익혀, 국내외에서 교양 있는 세계 시민으로써 행동해야 한다. 특히 새로운 시대의 장을 열어가고자 하는 대학인들이 지구촌이라는 첨예화된 경쟁의 장에서 거센 역풍을 이겨내고 문화의 장벽을 넘어 세계 속의 리더로 도약하려면 국제매너를 서구인들 못지 않게 몸소 실천할 때 가능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명숙(1983). “순자의 천(天)과 예(禮)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 유희수 역(1995). 노버트 엘리아스 저. 매너의 역사. 서울 : 신서원.
- 박성진 외 편(1997). 우리 나라 전례체계에 대한 연구. 서울 : 예문관.
- 신영식(1986). “퇴계의 경(敬)에 관한 연구”. 충북대 석사학위논문.
- 이정우 외 공저(1996). 생활문화와 예절.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 이정우·김연화(1998). 대학생의 ‘생활예절’ 관심도 및 수강 후 태도·행동 변화에 대한 만족도 - 숙대생을 대상으로 -. 대한가정학회지 제36권 12호. 161-173.
- 이종태(1997). 세계문화 뛰어넘기. 서울 : 더난출판사.

이형철(1999). 글로벌에티켓 글로벌매너. 서울 : 에디터.

전례연구위원회(1994). 우리의 생활예절. 성균관.

조선일보. 1999년 6월 28일자.

조선일보. 1999년 7월 19일자.

포스트(박홍석 譯, 1991). 서양식 예절. 서울 : 브리태니커.

황경식(1995). 개방사회의 사회윤리. 서울 : 철학과 현실사.